

4·29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보선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2>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정권교체 위해 제1야당에 힘 실어달라”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예비후보는 ‘덧날 사수’라는 막중한 중책을 지고 바닥 민심을 하고 있다. 조 후보는 30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지역 유권자들이 이제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염두에 두고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당을 뛰쳐나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정배 후보로 인해 더욱 긴장감을 갖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조 후보는 하루 19시간의 강행군을 펼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등을 돌린 민심을 끌어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 현재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을 만나면 모두 먹고 살기 힘들다, 민생과 서민생활 보호에 현 정부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현 정부의 호남차별에 대한 격정도 많다. 이 때문에 바닥 정서는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흐르고 있다. 민생 살리기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야당이 똘똘 뭉쳐 정권을 교체해달라는 열망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아권분열에 대한 격정도 많다.

-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도 상당하다.

▲ 조금 나아졌다. 작년이 최저점이었던 같다. 작년에는 대놓고 욕설도 하는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2·8 전당대회를 통해 문재인 대표가 선출된 뒤 당 지도부가 크게 상심하면서 ‘잘 하지는 지켜보겠다’고 격려하시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기대감도 상당한 것 같다. 열심히 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당이 거듭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번 보선 투표의 선택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일당 독점’ 구조에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

▲ 상대 후보들이 ‘일당 독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일당 독점’이 아니라 ‘호남 권익 대변하는 유일한 세력’이 정확한 표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민주당에서부터 오랫동안 호남민의 기대와 사랑을 받아온 유일한 세력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폐단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 당이 경제세력으로 집권세력으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지역의 확실한 지지기반 때문이



현 정부 호남 차별 심각 정권 심판론 바다 정서 전대 후 당 지도도 상승 등 돌린 민심 끌어올 것

다. 최근 수년간 여러 이유로 지역민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다시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 - 무소속 전정배 후보가 위협적인데. ▲ 전 후보 보다는 민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회초리를 들어준 광주 민심을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한다. 야당은 실력을 키워 하나가 될 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 다른 후보에 비해 자신의 강점이 있다면.

▲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력을 인정했다. 행정자치부 재직 당시 30년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기획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행사부 차관에 임명됐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면서 혁신도시에 들어설 한국 전력이 호남에 내려올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했다. 이러한 공적경험에 제18대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덕에 광주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 새벽 5시~6시부터 활동한다. 동네 목욕탕에서 시작해 아침 출근시간으로 아침 일정을 마친다. 그런 뒤 각종 지역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하거나 동네별 방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저녁 시간은 유권자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식당 등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고 선거사무실에서 회의를 한 뒤 자정이 넘으면 귀가한다. 수면시간이 하루 4~5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유권자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된다.

- 이번 선거의 의미와 전략은.

▲ 이번 보궐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호남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1야당의 힘이 있어야 한다. 어려운 민생생활과 청년실업에 일그러져가는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유일한 대안 수권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보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유일한 대안 수권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환경산업진흥원 2년간 개원 못해

인력·장비 부실로 인증기관 기준 미달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 법인 설립 허가 2년이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과 장비 미흡으로 인해 정부 인증기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내 준공을 목표로 장비와 인원을 보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만큼 수요가 뒤따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30일 전남도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재단법인 설립허가, 사업자 등록 등을 마친 뒤 개원을 준비했다. 이후 45억8200여만원을 들여 36대의 장비를 구입하고 원장, 사무국장 등 16명의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했으나 환경 분석 공인기관 및 환경부 인증기관의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강원환경산업단지 내 자리에 입주기업에 상대로 생산 제품의 환경 측정 등에 나서려했으나 강원산단의 준공이 연기되고, 분양률도 저조하면서 ‘개원식’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

진흥원 측은 올 상반기에 국비 40억원, 도비 40억원 등 모두 80억원으로 장비를 보강하고, 5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해 일단 등록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로부터 매년 1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받은 진흥원은 내년에는 15억원으로 증액해 요청할 예정이다.

문제는 진흥원의 주된 서비스 대상인 강진산단의 저조한 분양률이다. 현재 8.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강진산단은 연말 준공 예정이다. 최근 중소기업 특별지원책으로 선정돼 입주기업은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감면, 생산 제품의 제한 경쟁입찰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일단 ‘호재’라고 할 수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수출 제품의 환경인증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렸던 지역업체들과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업체의 인증서 발급비를 감안할 때 진흥원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4·29 보선 입후보 설명회 4·29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30일 오후 서구 치평동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다. 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이혜명 정무특보 임명 광주 여성재단대표 장혜숙씨

광주시는 30일 “새 정무특별보좌관에 이혜명(57) 전 누리문화재단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 특보는 민주당 광주 북구를 지구당 사무국장 겸 지방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민주당통합 광주시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말 신당 창당을 위해 조직한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광주·전남 실행위원 43명 중 한명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윤정현 광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광주시가 30일 새 여성재단 대표이사로 장혜숙(68·사진)씨를 내정했다. 시는 또 여성재단 사무총장에는 조영임(51)씨를 선임했다. 장 내정자는 전 광주YWCA회장과 전남도 복지여성국장 등을 거쳤으며, 조 사무총장은 성인지예산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장 내정자는 내달 15일께 광주시의회 인사 청문회를 거칠 예정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여성재단 대표이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애플문화도시조성위원장 역임... 30년 공직 경험 ‘정책통’

조영택 누구인가

조영택 예비후보는 완도 출신이지만, 서석초등학교와 서중·일고를 졸업한 사실상 광주 토박이다. 22세에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34세 최연소장 승진을 보냈다. 이후 경기도 군포시장·영정부 시장을 역임한 뒤 행정자치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지내는 등 30여년 간 중앙과 지방행정 두루 경험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직속 아시아문화중

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가계획 사업으로 추진해 광주발전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후보는 30여년의 관료 생활을 마친 뒤 정치에 입문했다. 첫 선거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후보로 나섰다. 민주당 박광태 후보에 패했다. 이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951년 완도출생 ▲광주제일고 ▲한양대 행정학 박사 ▲장성군수 ▲행정자치부 차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 위원장

■ 조영택 후보 5대 공약

- ▲문화수도 광주 위상 확립 ▲풍요한수 수질 개선 및 중앙공원 생태환경 조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R&D 센터 및 기업 유치 ▲서구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마복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통해 교육 문화특구 조성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Includes contact info for Gwangju branch: 062)228-1199, 062)431-0102, 062)955-5230, 062)464-80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대한민국 여행의 기준, 여행의 국가대표 하나투어. Includes wedding & honeymoon fair details and travel packages.

Small print at the bottom of the page containing legal disclaime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NT HanaTour.